

# 70여국 6200개 기업 IT향연 펼쳐

## 전세계 첨단 휴대폰, 디지털가전, 컴퓨터 제품 한눈에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세빛(CeBIT) 2005'가 독일 하노버의 아이치 메세 전시장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일주일간 화려하게 펼쳐져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70여개국 6,200여개 IT기업이 참가해 첨단 휴대폰, 네트워크, 디지털가전, 소프트웨어, 사무기기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업체로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이 대형 전시관을 마련했고 레인콤, 한글과컴퓨터 등 총 190개 업체가 제품 전시회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글\_한영일 서울경제신문 기자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들을 보면 독일이 2,900여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이완 777개, 중국 310개, 미국 209개, 영국 193개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66개 업체에 이어 올해는 190개로 규모면에서는 세계 여섯번째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 IT 강국의 위용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번 전시회의 전체 참가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2.6%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의 참가업체가 지난해 182개에서 올해는 70% 가량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일본도 지난해 26개사에서 올해는 36개사로 크게 늘어나 관심을 끌었다.

### 첨단 휴대폰 · 디지털가전 집중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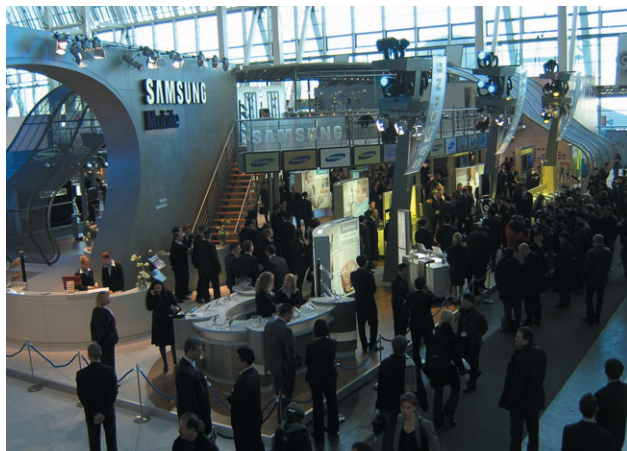
국내업체들은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거대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각종 첨단 IT 제품을 선보여 '한국기업 없이는 IT 전시회를 못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정보관, 통신관, OA관 등 총 1,036평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410개종의 최첨단 디지털 제품을 쏟아 냈

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크기의 82인치 LCD TV, 102인치 PDP TV, 71인치 DLP 프로젝션 TV와 세계 최초의 700만 화소 카메라폰, 3.5세대 차세대 휴대 단말기인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폰,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를 시청할 수 있는 노트북PC 등을 주력 제품으로 내놓았다.

특히 삼성전자의 부스에는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직접 방문해 700만 화소 폰을 직접 시연해 보며 감탄사를 연발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는 무려 4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LG전자도 '명작(Mastepiece)'을 주제로 총 850평 규모의 3개 전시부스에서 71인치 금장 PDP TV,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5인치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세빛(CeBIT) 2005'가 독일 하노버의 아이치 메세 전시장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일주일간 펼쳐졌다.



이번 세빛 전시회에는 190개 국내업체가 제품 전시회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디지털 LCD TV, 지상파 DMB 휴대폰 등 26개 제품, 550개 모델을 대거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팬택계열은 유럽 휴대폰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첨단 고기능 유럽형 3세대 이동통신인 UMTS 모델 3종을 최초로 선보이며 체온측정·지문인식폰을 비롯한 GSM 12종, iF디자인 어워드 수상폰, DMB폰, 스마트폰 모두 29종의 휴대폰을 출품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이기태·최지성 사장과 LG전자 박문화 사장, 팬택 이성규 사장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유명 CEO들이 대거 전시회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는 등 첨단 제품 홍보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 3G 이동 서비스 관련 제품 대거 출품

이번 세빛 기간에는 오는 하반기부터 유럽 지역에 3세대 이동 서비스 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국내업체들은 3G 휴대폰을 총 1,800만여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세계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및 범용통신기술(UMTS)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포부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올해 전세계 3G 휴대폰 시장은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5,000만대(일본 1,700만대 포함)로 전망돼 주요 휴대폰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지로 떠오른 셈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650만대 규모의 3G UMTS폰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고급 기능과 디자인으로 허치슨, 보다폰 등 대형 이동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글로벌 이동사업자인 허치슨을 비롯해 올해 총 1,000만대의 3G 휴대폰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400만대의 3G 휴대폰을 판매한 LG전자는 올해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리면서 3G 휴대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할 계획이다.

팬택계열은 전시회 기간중 유럽지역의 3세대 이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500만달러의 자본금을 투입해 독일 현지에 유럽법인 설립 계획을 밝히는 가하면 3G 이

### 세빛 박람회란

세계 최대규모의 정보통신박람회로서 지난 70년 'Center for Office and Information Technic'란 제목 아래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보조전시회로 닷을 올렸다. 이후 86년 정보통신분야의 독립 전시회인 'CeBIT(Center for Bureau,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으로 발전했다. 매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며 각 IT분야별 전문전시관을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전시회가 열린 아이치 메세 전시장은 총 100만평 규모의 대단지 29개의 대형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이치 메세의 핵으로 불리는 '26번 홀' 전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해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등 세계 유명 업체들의 부스가 집중돼 관람객과 바이어들로 연일 북적거렸다.

이와 함께 독일 하노버시는 세빛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큰 고용효과와 함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시회가 열리는 주말의 경우 세빛 전시회 입장권이 밀거래될 정도로 지역민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통신기술인 UMTS폰 3가지를 선보였다. 팬택은 오는 5월 유럽 법인 설립을 계기로 올해 100만대의 3G 휴대폰을 유럽지역에 판매할 계획이다. 모토로라는 올 하반기 미국 싱귤러와이어리스에 WCDMA 단말기를 공급하며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계획이고 노키아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뮤직 기능을 강화한 10모델의 3G 단말기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본 NEC·산요 등 3G WCD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들도 올해 3G 휴대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전세계 3G폰 시장은 내년에는 9,000만대, 2008년에는 2억만대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서 관련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 “관람객 잡아라” 이색 마케팅 ‘눈길’

세빛 2005에서 전세계 업체들은 첨단 제품전시와 함께



LG전자는 세빛 전시관에 차세대 휴대전화와 첨단 LCD TV 등 5,000여종의 IT제품을 전시했다.



지난달 10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팬택은 동작인식 게임폰과 멀티미디어통신방송(DMB) 폰 등을 출품했다.

세빛 전시장에서 만난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휴대폰 컨버전스 마하의 속도로 진행된다”



“휴대폰 컨버전스는 한마디로 ‘마하의 속도’로 진행중입니다”

세빛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이 내뱉은 일갈(一喝)이다.

이 사장은 “휴대폰 컨버전스의 한계는 없다”며 “앞으로 바이오메카노로지나 나노 기술과 휴대폰이 결합되면 가히 ‘수소 폭탄’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휴대폰 컨버전스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이 사장은 이날 “앞으로는 뇌세포까지 자극하는 휴대폰도 나오게 될지 모른다”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700만 화소폰을 내놓는데 대해 이 사장은 “카메라 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800만, 900만 화소폰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휴대폰의 진화에는 끝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국내기자 간담회에 앞서 개최한 외신 기자간담회에는 400여명의 해외 취재진이 몰려와 새삼 삼성전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기도 했다. 이 사장 역시 해외언론의 엄청난 관심에 기분이 ‘업(up)’ 됐는지 국내 기자간담회 내내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 났다.

전시회 기간동안 3.5G 단말기를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끈 이 사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4G 기술개발과 관련한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통신기술 개발로 IT강국의 이미지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4G는 2012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예정이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이 이미 연구 개발에 돌입해 있다”며 “정지시에는 1G, 이동시에도 최소 100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자랑하는 통신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갖가지 이색 마케팅 및 제품을 펼치며 관람객 시선 잡기에 적극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방문에 이어 11일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차두리 선수를 비롯해 수명의 스타플레이어를 동원, 팬사인회를 가졌다. 삼성전자는 또 한 개 홀을 통째로 임대, 온라인게임대회(WCG)를 진행해 젊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2006년 독일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인 LG전자도 지난달 11일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해 독일 축구팀 선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팬사인회를 벌여 유럽인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세계 주요 업체들이 모여있는 ‘황금의 26번홀’에 처음으로 부스를 차린 팬택계열도 200만 화소 카메라폰으로 찍고 무선으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전송, 바로 사진을 인화해주는 이벤트를 벌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세계 1위의 휴대폰 업체인 노키아는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를 꼭 빼놓은 모델을 등장시켜 관람객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독일의 지멘스사는 관람객들의 구두까지 닦아주는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시장 곳곳에서는 갖가지 경품 행사와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들이 풍성하게 펼쳐져 전시회를 넘어 하나의 정보통신 축제를 방불케 했다. 이색 마케팅과 함께 관람객들의 눈길을 붙잡는 이색 제품들도 쏟아져 나왔다.

‘트랙2000’이 내놓은 USB 저장장치엔 지문을 인식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 사용자가 손끝을 대 신원 확인을 거쳐야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보다 손쉽게 영화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도 선보였다. 싱가포르사의 무지 테크놀로지가 선보인 ‘무비 오토 프로듀서’는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24가지의 스타일을 사용자가 지정해 원하는 DVD나 CD로 제작할 수 있다.

미국 이매진이 내놓은 ‘Z800’은 착용하면 3차원 영상이 펼쳐지도록 한 제품. 이 제품에 쓰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1인치도 채 안 될 정도로 작지만 105인치 대형 화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국내 중소기업들 2억5,000만달러 수출 계약

코트라(KOTRA)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관에 참가한 중소 IT 벤처업체들은 수출 상담액 12억5,000만달러, 계약금액 2억5,000만달러를 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세빛 한국관의 방문객도 지난해의 7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컨버전스 관련 제품 및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 등 경쟁력 있는 첨단제품을 다수 출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시기간 동안 한국관을 찾은 실질 구매자만 약 9,000여명에 이르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와 동유럽 및 북유럽의 고객들과 상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LCD(액정디스플레이) TV 전문업체인 디보스와 텍트론, 팬 없는 컴퓨터 케이스를 개발한 잘만테크, 멀티미디어 업체 씨에스이 등이 각각 500만~4,0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한국관은 디지털 컨버전스, 디스플레이 제품 등이 주로 전시됐다. ●